

서울의 다문화 공간 연구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를 이용한 국내 언론의 외국인 마을 보도(1990~2016) 분석*

이은별 고려대학교 언론학과 박사과정**

전진오 고려대학교 언론학과 박사과정***

백지선 고려대학교 언론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국내 주요 언론이 서울 내 외국인 마을을 보도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특정 외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본다. 외국인 마을에 대한 언론 보도량의 주제별,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뉴스 전문 채널, 그리고 신문사를 포함한 16개 언론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보도된 뉴스 중 프랑스인 거주 지역인 서래마을, 일본인 거주 지역인 동부이촌동, 그리고 중국인 거주 지역인 구로동을 주제어로 보도된 기사를 추출하여 일원 변량 분산 분석을 통해 보도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서래마을의 경우, 문화 관련 주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반면, 구로동의 경우 서래마을과 동부이촌동에 비해 경제 뉴스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문화 관련 보도는 미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원 변량 분산 분석을 통해 외국인 마을과 보도 시기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마을과 보도 시기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후 외국인 마을에 대한 보도가 많아졌고, 특히 문화 주제의 보도에서는 서래마을에 관한 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체의 편향된 보도 관행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이 대중에게 외국인 거주 마을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다문화 공간의 구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인 유입이 점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산되는 공간 담론을 빅카인즈를 활용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공간, 서래마을, 동부이촌동, 구로동, 다문화, 빅카인즈, 뉴스 빅데이터

* 이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활용하였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심재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설적인 조언을 보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eunbyully@korea.ac.kr

*** jinojohn2012@korea.ac.kr

**** avril_jb@korea.ac.kr

1. 문제 제기

요즘 대학가에서는 이슬람식 의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흔히 눈에 띄고, 이태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도 음식점과 프랑스식 디저트 전문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세계화가 다방면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이 개방되자 다국적 기업을 필두로 해외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활발한 자본의 탈국경화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이주 노동 인구의 유입을 야기하였고, 취업 뿐 아니라 교육, 결혼, 주재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법무부, 2016)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9만9519명으로, 2014년 대비 5.7%(10만1901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며, 17개 광역 시·도 중 인구가 열 번째로 많은 전라남도(179만9044명)와 비슷할 수이고, 충청북도(158만 명)보다 더 많은 수치다(천인성, 2016). 이 중 단기 체류자(관광 혹은 사업차 방문)를 제외한 장기 체류자는 146만7873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77%를 차지한다. 이러한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서울시 등록 외국인 수는 2007년 22만9072명에서 2016년 3분기 현재 27만2117명으로 늘었다(서울통계, 2016). 구체적으로 거주 유형별 외국인 공간 분포를 분석한 연구(박세훈·정소양, 2010)에 따르면, 서울시에 는 외국인 노동자가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결혼 이민자가 2천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노동자 거주 지역과 동일), 유학생이 1천5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광진구), 그리고 전문 인력이 1천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이 밀집해 있으므로, 다양한 거주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사회, 특히 서울시 내 외국인의 정주화 현상은 매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제도적으로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고용 허가제·방문 취업제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거나 결혼 이민자에게도 일정 기간 체류만을 허용하며 법적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및 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받지 못하여 한국 생활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국가 출신, 혹은 유사 문화권 이주자들과 집중적으로 교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상권, 교육 기관, 종교 기관과 같은 사회 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울의 외국인 마을들은 국내 유입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포린후드 시대¹를 열어 가고 있다(정임수, 2013). 거주 목적에 따라 유사 문화권 출신 이주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지역 물가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입의 증가에 따른 상권 확장과 외국인 학교의 이전 등으로 인해 이주 초반에 형성 하였던 마을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김나한, 2016). 예컨대 1992년 한·중 수교 정상화 이후에 중국인(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 포함)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주 초기 형성된 구로구의 중국인 마을은 정착 안정화와 함께 이주민 수가 증가하며 인접해 있는 영등포구와 관악구까지 거주지를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집단 거주지의 확장이 주류 한국 사회로의 편입과 더불어 한국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의미하는지 재고의 여지가 있

1 포린후드(foreignhood)란, foreigner와 neighborhood의 합성어로 한국인과 이주민이 어울려 사는 주거 문화의 확산을 의미한다.

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의 공존과 확대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출신 국가에 따라 외국인을 달리 느끼며 다문화에 대한 인지적 선호와 실질적·정서적 수용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강기현·박민제·성호준, 2017). 이는 주류 사회로의 이주민 유입을 현실적인 사안으로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단일 민족주의에 기인한 배타성을 넘어서지 못한 결과이다. 윤인진과 송영호(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주민 증가에 따른 범죄 발생과 주거지 환경 악화를 사회 심리적 위협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집합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국민 정체성으로 인해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민의 경계 허물기는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위협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김미향, 2016)을 가지거나, 서구권 출신의 백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감정적 기제(동아일보, 2017)를 발동한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결집하여 형성한 사회 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반영한 것으로, 이주민과의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한국인의 경우 언론 보도의 현실 구성이 특정 거주지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김희상과 윤인진(2017)은 한국인과 북한 이탈 주민 간의 제한적인 접촉 상황을 고려하여 미디어를 매개로 한 간접 접촉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 수용성 개선을 논의하였다.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부적응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접하더라도 따뜻함이라는 연민의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정서적 수용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이주민과 그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주류 사회로 편입되고자 하는 이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언론 보도의 역할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의 외국인 마을에 대한 보도 태도를 분석하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인 마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 담론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한국 언론의 이주민 재현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문화 사회의 초입에 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간과 외국인 거주 분화 양상을 살펴본다. 또한 이번 연구의 주요 데이터 베이스인 빅데이터가 언론학에서 어떻게 주목받고 있는지 연구 동향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마을에 대한 언론 보도의 이슈 생성을 분석하여 특정 외국인 마을에 대한 이미지의 고착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문헌 검토

1) 한국 언론의 이주민 재현의 특성: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 담론의 갈등

김은미와 김지현(2008)은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자의 경우 주류 사회의 문화를 우선 인정하며 그것을 근간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형인데, 미국이 택한 소극적인 다문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주류 사회의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캐나다나 호주가 택한 다문화 모형이다. 이때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인종·민족·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이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윤인진, 2008; Troper, 1999). 비교적 짧은 역사의 외국인 유입과 행정 절차상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상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나 현실적으로는 문화 다원주의 모형을 따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윤인진(2008)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기보다는 동화주의 성격이 강한 정부의 ‘다문화 지향’ 정책을 지적하였다. ‘관 주도’적이기보다는 국가와 시민 단체 간의 정책 네트워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보안 관계 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불완전한 개념 정립 단계에서 일상적인 다문화 경험이 선행되며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다문화 현상을 일찍이 직면했던 서구에서는 오히려 다문화주의의 퇴조가 나타나고 있다(설한, 2014). 이처럼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문화의 다양성 인정과 공유라는 모순된 가치의 갈등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소수자로서의 외국인 이주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기회가 부족한 한국인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다문화 사회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다. 고정관념과 언론에 대한 아모시(Amosy, 1997)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뉴스 보도를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불확실한 상상적 구성이 사회 내로 전파되면 선별적인 인지 작용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도 한국 언론의 사회 내 소수자로서 이주민 재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우선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매체의 정파성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가 ‘온정주의’, ‘타자화’, ‘내재화된 오리엔탈리즘’을 주요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보수 매체보다는 진보·대안 매체가 제한적으로나마 한국의 지배적 가치를 벗어나 이주민의 시각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사회 통합적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인희·황경아, 2013). 지상파 방

송 뉴스 중 시청률이 가장 높은 KBS 9시 뉴스 역시 이주민을 단순 노동자나 범죄자로 한정 짓는 프레임을 사용하고, 인종·국적·성별에 따라 위계적 재현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남성의 경우 기술직 노동자로, 동남아 여성은 결혼 이주 여성으로 재현한 반면, 백인들은 전문가나 운동선수로 재현하며 집단보다는 개인적 특성을 부각하는 시각적 재현 방식을 사용하였다(주재원, 2014). 이주민 관련 기사의 이분법적 담화 전략을 분석한 신유리(2013)의 연구도 한국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우리’와 이주민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그들’로 타자화하는 양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된 주장은,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를 정형화된 이미지로 반복 재현하면, 수용자들은 타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9·11 테러(2001), 김선일 이라크 피랍(2004), 걸프 해역 해적 납치 및 이슬람 여성 탄압 등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노출될수록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나타나 이태원 관광 특구에서의 이슬람 음식 소비에도 거부감이 나타났다(박종구·육풍림·강재구, 2012). 또한 이주 노동자 관련 범죄 보도 노출이 한국인의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사회 치안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인식하며 사회적 거리감을 강화한다(우충완·우형진, 2014). 이때 이주 노동자들과의 직접 경험이 반드시 긍정적인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므로, 이주 노동자들의 범죄 관련 보도에 대한 빈번한 노출은 타자화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인종적 편견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특유의 민족주의 정서를 발동하여 외국인의 국적과 이주 목적에 따라 인종적·민족적 배타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범죄에 따른 불안감

증대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성찰이 부재한 반다문화 담론의 형성으로 보인다(심양섭, 2016). 온라인 공간에서는 타자에 대한 경계심을 주류 사회 구성원과 공존 불가능한 차이로 지적하기도 한다. 거주민과 이주민의 차이를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에 대한 육주원(2016)의 연구는, 기존의 인종화·젠더화되었던 주류 다문화 담론의 틀을 적극 활용하는 반다문화 담론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수용 가능한 다양성의 정도는 여전히 타자인 이주자를 위계화하고, ‘문화’를 필두로 인종주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중에서도 노골적인 인종적 차별을 유발하는 것을 천박하다고 여기는 집단 의식에 의해 상징적 인종주의가 발동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인종 차별적 태도를 보이지 않기에 암묵적 인종주의라고도 불린다. 또한 특정 인종의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신들이 속한 주류 다수 집단의 이권이 침해받는다 고 여기고 차별적 인식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한국 사회의 상징적 인종주의는, 일제 식민지 당시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경험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뿌리 깊은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것이다(김현희, 2014). 레드로스크(Redlawsk, 2014)의 연구에 따르면, 다인종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는 사회 내 다양성 추구하고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현대 사회의 인종 차별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흑인 우대 정책에 반대하거나 흑인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론의 인종에 대한 타자화로 뉴스 수용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인종주의를 학습하게 되고, 이렇게 내재화된 차별 의식은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2) 다문화 공간과 외국인 거주지 분화

서울시 내 외국인 마을의 거주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거주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서울의 다문화 공간을 네 가지로 구분한 김일립(2009)에 따르면, 본격적인 세계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쯤 교육과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족적 특징의 연희동 차이나타운, 동부이촌동 일본인 마을, 반포동 프랑스 서래마을과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목적에 따라 슬럼화된 장소에 민족별 게토(ghetto)를 형성한 조선족 마을, 무슬림 마을로 면적 공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도로변을 따라 일시적 상권을 형성하는 나이지리아, 필리핀, 네팔 거리가 선적 공간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하나의 건물을 중심으로 수직적 경관을 형성하는 점적 공간 유형으로는 몽골, 러시아 타운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유입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대부분이 사회적 하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그들의 거주 지역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빈곤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66%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인종에 따른 노동 시장의 분절화가 일어나 민족별 거주지 분화가 확산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박세훈·정소양, 2010).

김은미(2007)는 주류 인구가 총 인구의 98%에 달하는 비이민 사회로서의 한국에 나타나는 외국인 마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타 집단에 비해 비교적 긴 이주 역사를 가진 민족 집단을 중심으로 주거 마을이 형성된다. 여기에 이주 노동자들이 여가 시간을 영위하는 문화 공유의 공간이 소수 문화의 소통 채널로 나타난다. 이러한 서울 내 외국인 마을의 분포는 푸코(이상길, 2014)가 제안한 헤테로토피아와 연결 지을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와 연결 지을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피아와 달리, 정상성을 벗어나는 공간의 배치가 실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에 의해 고안되고, 그 안에서 제도화되는 공간으로 이러한 장소들은 우리의 일상 공간에 존재하지만, 공존한다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고립된 장소들이기도 하다. 또한 열린 장소지만, 그 내부로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사회적 배제가 일어날 만큼 폐쇄적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에 사는 필리핀 이주민 사회를 연구한 임안나(2016)는 주말마다 모이는 그들만의 아파트라는 공간이 거주국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이주자들을 분리하는 동시에 안식처로 기능한다는 점을 들어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서울의 외국인 마을 역시,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수만큼 거주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나 정작 공존하는 주류 한국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표면상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 속에서 주류 거주민과 소수의 이주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각자의 거주 영역을 확보한 이질적인 공간들이 결합한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캐나다의 경우 일자리가 풍부한 대도시(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초기 이주민이 거주 공간을 형성했으나,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 시행으로 인해 거주지가 분산 및 확산되고 있다(강휘원, 2010). 또한 서민 거주지이면서 동시에 외국인 밀집지로 발전한 프랑스의 벨빌 지역은 비숙련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프랑스적 도시 일상의 풍경을 넘어 전형적인 프랑스 문화와 대치되는 요소들이 혼재한 공간으로 공간 실천에 대한 정체성의 갈등을 유발하였다(송도영, 2008). 이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서의 이주민 거주 공간의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의 문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문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안산시 원곡동을 중심으로 ‘국경 없는 마을’ 다문화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

하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이주 노동자들을 주민등록 없는 거주민으로 인정하는 대안적인 지역 운동이었지만, 지역 공동체와의 괴리와 이주 노동자들의 주체성 상실로 인한 한국 사회로의 부적응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다(오경석·정건화, 2006). 이러한 이주민과의 공존에 대한 갈등에 대하여 마다니푸(Madanipour, 2003, p. 75)는 경제적 재구조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가 공간의 분화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으로 이주민은 밀집하게 되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 그곳에 있던 내국인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기존 상권, 교육 환경, 행정 서비스 등이 재편되는 것이다. 이때 다문화지구의 주거 지속성과 공간 인식을 살펴보면(이석현, 2015), 다문화에 대한 환경적 위협과 불안정성이 주거 공간 지속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높은 다문화 수용성으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면 주거 지속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 마을의 공간적 분화에 대한 언론 보도의 관여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언론 보도에 따른 거주지 분화의 기저에 있는 ‘우리’와 다른 ‘그들’ 간의 비가시적인 경계를 형성하는 타자화를 간과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의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국 자본과 외국인의 유입이 세계적인 현상이었듯이, 한국 사회로의 외국인 이주자 급증과 도시 공간으로의 집중 역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의 복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마을의 초기 형성부터 오늘날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했을 때, 국내 주요 언론 보도가 거주지 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언론학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그동안 언론학에서는 주로 보도 경향이나 논조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어 왔

다. 보도 주제나 매체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직접 코딩하여 분석하는 내용 분석이나 담론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이주민과 다문화 관련 주제는 사회학, 인류학, 문화 연구 진영에서 다루어져,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질적·양적 분석을 아우르는 다양한 접근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시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보도 자료의 양적인 면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라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언론이 이주민을 보도하는 양상, 그중에서도 외국인 거주 공간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오늘날 기술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이터양과 그에 상응하는 컴퓨터의 디지털 저장 능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엑사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개념은 201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방대한 데이터의 관리 및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빅데이터는 단순히 많은 양의 데이터라는 개념을 넘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분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네 가지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데이터의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의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들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에 IBM이 진실성(veracity)의 개념까지 추가하여 빅데이터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김성태, 2015). 이처럼 데이터의 범주가 커지고, 분석의 도구가 다양해지면서 추리 통계만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웠던 범위까지 연구 대상으로 확장하여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뉴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전통적인 방법인 기사의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오디오가 포함

된 기사처럼 반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까지 그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대규모의 데이터를 인식 가능하도록 정리해 주고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이다(Manovich, 2011).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을 시도한 박대민(2013)의 연구는, 향후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과학의 분석은 짧은 시간 내에 실시간 데이터와 장기 데이터를 모두 분석할 수 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와 샘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방식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가 언론학에서 새로운 연구의 원천이 될 이유로 정보 분석 방법의 변화도 들 수 있다. 특정 현상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샘플 연구로는 알아낼 수 없는 범주를 찾을 수 있다(Viktor & Kenneth, 2013) 따라서 샘플 분석을 통한 추리 통계 방식이 아닌, 원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본 오차가 없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 추출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기존 내용 분석 방식에서 연구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정리하고 코더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오류도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뉴스 분석은 새로운 차원의 거시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빅카인즈를 통해서 41개 매체의 뉴스를 1990년부터 저장 및 제공하고 있다.² 이처럼 정형, 반정형, 비정형 뉴스를 모두 빅데이터화하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뉴스를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뉴스 중에서 검색 영역과

2 기존 한국언론진흥재단 '카인즈'에서는 66개 매체에 대한 1990년 이후 뉴스 기사를 저장 및 제공하였으나, 2016년 공개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서는 41개 매체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 방식을 설정하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분석에 필요한 뉴스만 추출할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뉴스를 추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태소 분석의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이 없지만 검색어로 입력된 단어와 형태소가 동일한 경우 모두 추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추출된 뉴스들을 제목이나 주제어로 재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중복 추출되는 뉴스들도 검색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Excel 2010을 활용하여 중복되는 기사를 삭제하는 작업을 하였다.

3. 연구문제

이 연구는 서울 내 외국인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외국인 거주 마을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주제별로 차이가 있는가?

기존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 내 외국인 마을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다. 그에 따라 <연구문제 1>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도 주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하여 거주지별 보도 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의 경우 뉴스가 보도된 지면, 방송 뉴스인 경우 보도 주제 분류를 해당 뉴스의 대주제로 보고,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보도가 특정 주제와 얼마나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 연구문제 2 외국인 거주 마을에 대한 언론 보도량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

이때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 마을과 특정 주제의 뉴스 보도가 연관성을 띠며 반복된다면,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 예컨대 서구권 출신 이주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긍정적인 보도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비서구권 출신 이주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해당 집단 구성원에 대한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 보도 변화 추이를 통해 언론이 특정 외국인 이주자 마을과 이주민 집단을 연결하는 방식이 고정되는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고정관념을 전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보도 주제의 성향을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뉴스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뉴스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³를 활용하여 수집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41개의 뉴스 채널 중 지상파 방송사 MBC와 SBS,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 YTN까지 3개 방송사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13개 신문사로 총 16개 뉴스 미디어를 분석 대상

3 tools.kinds.or.kr, BIG KINDS-Pro

으로 한정하였다⁴. 빅카인즈를 활용한 연구가 초기 단계인 만큼, 김은이, 송민호, 그리고 김용준(201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빅카인즈에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구독률을 보이는 세 신문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방송사까지 포함해 더 많은 수의 뉴스 미디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일 수 있었다(박대민, 2016). 이 연구에서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사는 종이 신문이 아닌 언론사 닷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신문 간의 비교가 아닌 언론사 간 연구가 되고, 방송사 뉴스의 반정형·비정형 상태의 뉴스도 정형화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뉴스의 양은 방대하다. 이처럼 많은 데이터의 양으로 연구의 질을 높였다. 그리고 코딩 대신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빅카인즈를 이용한 뉴스 추출 방식은 많은 양의 기사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여 최근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추세다. 이 연구에서도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국내 주요 언론에서 어떤 주제 분류를 통해 보도하고 있는지 주제어 검색을 통해 뉴스를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4 '빅카인즈'의 매체명은 자매지를 포함하고 있다. <매일경제>의 경우, 신문 외에 <MBN>, <매경이코노미>의 기사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사 수집 시작점이 <문화일보>는 1997년, <내일신문>은 2003년,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1995년, <서울경제>는 1996년, <헤럴드경제>는 2000년, <파이낸셜뉴스>는 2002년, 나머지 6개의 전국지는 1990년부터 수집되었다. 이처럼 수집 매체 수의 증가에 따라 절대적인 보도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집 매체의 변화를 통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외국인 거주 마을과 특정 주제 보도에 관한 상대적 비교이며, 시계열 분석에서는 키워드별 분석보다는 키워드 간 보도량의 차이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다.

기사 내 단어의 빈도 분석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트렌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키워드 트렌드’ 기능은 연간, 월간, 일간으로 자료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편이를 제공한다.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키워드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지만, 기간과 기간, 키워드와 키워드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전처리 과정으로 기사들을 Excel 2010에 정리하였고, 통계적 검정을 위해 SPSS를 사용하였다. 기사의 빈도는 Excel 2010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이용하여 직접 분류, 산출하였다. 또한 기존 신문 연구에서 지면별로 데이터를 분류, 분석했던 방식 대신 빅카인즈의 주제별 분류를 적용하였다. 기존 신문 지면과 다른 뉴스 분류 방식을 따르는 빅카인즈는 구체적으로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과학과 같은 8개의 [통합 분류]로 제공하고 있고, 통합 분류와는 별도로 기사 내용을 범죄, 재해, 사고, 사회에 관한 [사건/사고] 분류로 함께 제시하여 기사 검색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 분석 기간

이 연구는 뉴스 빅데이터의 보도 성향을 분석하고자 가능한 많은 뉴스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6일까지 보도된 뉴스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빅데이터 연구의 장점을 최대한화하기 위해 빅카인즈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최초 뉴스부터 가장 최근 뉴스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이는 최대한 많은 수의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사례 수가 적었던 기존 내용 분석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박대민(201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계열 분석을 통해 27년간 뉴스 기사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한 장기 시계열 분석으로 뉴스 보도 성향의 거시적 지형을 보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3) 표집 방식

연구 분석 대상인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에 관한 뉴스는 빅카인즈에서 제목 및 본문에 연구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색어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속성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가장 많은 인구의 외국인의 출신국가로 대표되는 ‘프랑스’, ‘일본’, ‘중국’ 을 검색어로 지정하였다.⁵ 이 세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서구권과 비서구권 이주자 집단을 분류하기 위함인데, 프랑스인들은 다른 서구권 출신 외국인들과 달리 행정적, 언어적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여 거주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서구권을 대표하는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일본인의 경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으로의 이주가 활발히 진행되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인 마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역사성과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해 선정하였다. 중국인으로 분류되는 외국인들은 프랑스나 일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계 중에는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유입된 외국인 집단으로, 이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정상화 이후 친지방문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하여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중국인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외국인 이주자들이 거주하며 형성한 외국인 마을의 명칭, 혹은 지역 이름을 주요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서울시 내 약 28개의 외국인 거주 마을 중에서 프랑스인 이주자들의 거주 지역인 ‘서래마을’,⁶ 일본인 거주 지역인 ‘동부이촌동’, 그리고 중국인 이주자들의 집단 거

5 미국 출신 이주민들은 특정 마을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출신 국가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프랑스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 지역인 '구로동'을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의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모두 포함하고 있는 뉴스를 추출한 결과, 서래마을에 관련된 뉴스 기사는 890개, 동부이촌동에 관련된 뉴스는 353개, 그리고 구로동에 관련된 뉴스는 901개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사 검색을 위해 사용된 9개의 검색어는 다음과 같다. 1) 서래마을, 프랑스, 2) 동부이촌동, 일본, 3) 구로동, 중국, 이렇게 외국인 마을이 형성된 행정구역상 동이나 마을 명칭과 이주자들의 출신 국가를 검색어로 입력해 뉴스를 추출했다.

5. 연구 결과

1) 외국인 마을에 대한 뉴스 주제 유형별 보도량의 차이 분석

(1) 기술 통계

서울시 내에서 프랑스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들이 모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표되는 서래마을, 동부이촌동, 그리고 구로동과 이주민들의 출신 국가인 프랑스, 일본, 중국을 키워드로 빅카인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뉴스 총 3016건을 추출했다. 빅카인즈에서는 연도별, 주제 분류별, 기술 통계 자료를 검색하여 추출하였고, 추출된 기사에서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지역과 이주민을 분류하였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Excel 2010을 활용하여 연구 주제와 맞지 않는 기사는 삭제하였다.⁷⁾

6 서울 거주 프랑스인의 75%가 거주하는 서초구 방배동과 반포동은 1980년대 후반 프랑스 외국인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 가족이나 대사관 직원 가족들이 주요 구성원이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구분이 아닌, 방배동과 반포동에 걸쳐 있는 프랑스 마을로 널리 알려진 '서래마을'을 검색어로 설정하였다.

표 1. 주제 분류별·지역별 뉴스 보도 건수

(단위: 건, 괄호 안은 %)

	서래마을*프랑스	동부이촌동*일본	구로동*중국	총계
지역	1 (0.14)	5 (1.63)	35 (4.50)	41 (2.30)
정치	3 (0.43)	9 (2.94)	12 (1.54)	24 (1.35)
스포츠	8 (1.15)	7 (2.29)	7 (0.90)	22 (1.24)
사회	125 (17.93)	33 (10.78)	90 (11.58)	248 (13.93)
문화	256 (36.73)	120 (39.22)	91 (11.71)	467 (26.24)
국제	242 (34.72)	44 (14.38)	83 (10.68)	369 (20.73)
경제	50 (7.17)	79 (25.82)	406 (52.25)	535 (30.06)
IT_과학	12 (1.72)	9 (2.94)	53 (6.82)	74 (4.16)
총계	697 (100.00)	306 (100.00)	777 (100.00)	1,78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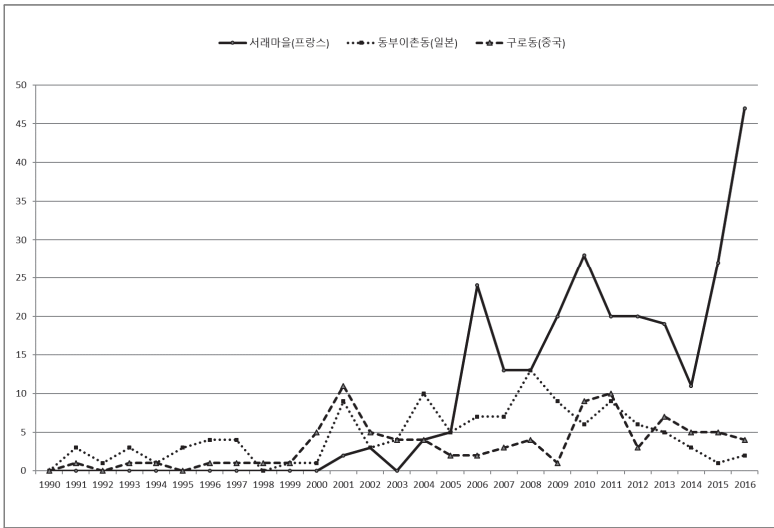
note: 표에 제시된 수치는 '기사 건수'를, 괄호 안의 수치는 마을별 보도량 중 해당 분류의 보도 비율(%)을 의미함.

우선 전체적인 뉴스 보도량의 비교를 위해서 9개 검색어 1) 서래마을, 프랑스, 2) 서래마을, 일본, 3) 서래마을, 중국, 4) 동부이촌동, 프랑스, 5) 동부이촌동, 일본, 6) 동부이촌동, 중국, 7) 구로동, 프랑스, 8) 구로동, 일본, 9) 구로동, 중국으로 뉴스 보도 건수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마을에 대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서래마을과 프랑스 관련 보도 697건, 동부이촌동과 일본에 관한 보도 306건, 구로동과 중국에 관련된 뉴스 보도 777건을 바탕으로 최종 분석했다.

프랑스인들이 서울로 이주해 모여 사는 마을로 유명한 서래마을에 관한 보도량을 보면, 서래마을에 관련된 뉴스 보도 중에서 중국인이나 일

7 초기 검색에서 추출된 자료는 총 3530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복 기사 및 [인사], [신설법인 현황] 관련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3016건을 분석하였다.

그림 1. 마을별 문화 주제 연간(1990~2016년) 보도 변화 추이 (단위: 보도 건수)



본인에 관한 뉴스보다 프랑스인에 관한 뉴스 보도량이 현저히 많았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문화 관련 주제의 보도량이 256건으로 서래마을과 일본, 서래마을과 중국에 관한 보도에 비해 2~4배가량 많은 양이었다.

일본인 거주 지역인 동부이촌동을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한 결과를 보면, 모든 주제 분류에서 일본인에 대한 보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문화 주제의 보도량이 12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 주제의 보도량이 그 뒤를 이어 많았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구로동에 관련한 뉴스에서도 일본인이나 프랑스인에 대한 언급보다 중국인에 대한 보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제 분류별로 비교해 보면 사회 90건, 문화 91건, 국제 83건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경제 관련 주제로 보도된 뉴스가 406건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프랑스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뉴스 보도량을 종합해 보면, 각각의 마을에 대한 보도가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류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보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수용자들에게 서래마을은 프랑스인, 동부이촌동은 일본인, 그리고 구로동은 중국인들의 터전으로 각인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 연구에 맞게 세 지역과 이주민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이용한 뉴스 데이터는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언론의 문화 주제 보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문화 주제 분류만 추가 분석해 보았다. 연간 보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나는데, 연간 서래마을과 프랑스에 관한 뉴스는 문화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반면에 동부이촌동과 일본, 구로동과 중국에 관한 문화주제의 보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원 변량 분산 분석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통계적인 상관성 분석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추리 통계를 통해서 인과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 방법과의 차이기도 하다(Viktor & Kenneth,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빅카인즈에서 제시하고 있는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보도 성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빅카인즈에서의 뉴스 유형 분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이 신문에서의 지면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때 빅카인즈의 뉴스 유형 분류는,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뉴스 전달 매체가 성행하는 시점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지면 분류보다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빅카인즈가

제시하고 있는 뉴스 유형 분류를 차용하였고, 분석 대상인 프랑스, 일본, 중국에서 서울로 이주한 외국인들을 기준으로 뉴스 유형별 보도 건수 평균값의 차이를 ANOVA로 검증하였다.

〈표 2〉는 서래마을과 프랑스, 동부이촌동과 일본, 그리고 구로동과 중국에 관련된 뉴스가 주로 어떤 주제로 보도되었는지 보도 건수 평균값의 차이를 ANOVA로 분석한 결과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이주자 마을과 뉴스 주제 유형별 보도량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주제는 지역, 문화, 국제, 경제, IT_과학 분야 주제였다. 이 가운데서도 통계적 설명력이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서래마을과 프랑스 관련 보도에서 문화 주제와 구로동과 중국 관련 보도에서 경제 주제의 뉴스였다. 서래마을과 프랑스를 키워드로 보도된 뉴스는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서 가장 보도량이 많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49.65, df = 2,520, p < 0.05$). 프랑스인들이 밀집하는 서래마을에는 그들의 생활방식을 향유하기 위한 성향이 강하므로 프랑스풍의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와이너리, 베이커리, 레스토랑 등이 많다. 이러한 프랑스식 지역 환경으로 인해 내국인에게도 데이트 명소나 나들이하기 좋은 장소로 주목받고 있고, 때때로 프랑스인들의 축제도 열리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도 각광받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래마을과 프랑스에 관련된 뉴스는 문화 관련 주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구로동과 중국의 경우는 경제 주제의 뉴스 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F = 49.32, df = 2,520, p < 0.05$). 1960대 구로수출공단이 자리 잡으면서 중국인 노동자들과 조선족이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한·중 수교로 조선족의 방문이 자유로워지면서 이곳의 이주민 인구 밀도는 더욱 높아졌다. 보도된 뉴스를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취업과 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

표 2. 외국인 이주민들의 거주 마을별 뉴스 보도량 일원 변량 분석 결과

	서래마을 *프랑스	동부이촌동 *일본	구로동 *중국	df	F	η^2	p
지역	0.007 ^a (0.085)	0.029 ^a (0.253)	0.165 ^b (0.679)	(2,520)	6.42***	0.02	.002
정치	0.022 (0.146)	0.053 (0.249)	0.057 (0.318)	(2,520)	0.84	0.00	.433
스포츠	0.058 (0.337)	0.041 (0.226)	0.033 (0.265)	(2,520)	0.35	0.00	.706
사회	0.906 ^b (4.378)	0.193 ^a (0.714)	0.425 ^{ab} (0.918)	(2,520)	3.56***	0.01	.029
문화	1.855 ^b (2.291)	0.702 ^a (0.818)	0.429 ^a (0.702)	(2,520)	49.65***	0.16	.000
국제	1.754 ^b (5.434)	0.257 ^a (0.636)	0.392 ^a (0.749)	(2,520)	12.66***	0.05	.000
경제	0.362 ^a (0.773)	0.462 ^a (0.753)	1.915 ^b (2.488)	(2,520)	49.32***	0.16	.000
IT_과학	0.087 ^a (0.372)	0.053 ^a (0.410)	0.250 ^b (0.659)	(2,520)	7.92***	0.03	.000
총계	5.051 ^b (9.747)	1.789 ^a (1.702)	3.665 ^b (3.212)	(2,520)	13.78***	0.05	.000

note 1: 월별 평균 기사량(M)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 편차(SD)를 보여 줌. 자료의 특성상 소수점 3자리까지 표
시. 가령, 구로동*중국의 '지역'과 관련한 보도량은 $M = .165$ 으로 이것은 구로동*중국의 '지역' 주제의 기
사가 지난 27년간 월별 약 0.165회씩 평균적으로 보도되었음을 의미함.

note 2: a, b로 제시된 첨자는 ANOVA 사후 검정(Scheffé, b Test) 결과.

유의수준(Substet for alpha, $p = .05$)에서 마을별로 보도량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a, b
혹은 c로 제시. c인 경우 b에 비해서 보도량이 더 높았음을 의미함($c > b > a$).

note 3: * $p < 0.1$, ** $p < .05$, *** $p < .001$.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부이촌동과 일본의 경우는 문화, 국제, 경제, IT_과
학 분야의 뉴스에서 고르게 보도하고 있어, 한 주제에 편향되지 않고 비교
적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균등하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 마을에 대한 뉴스 주제 유형별 보도량의 연도별 차이 분석

(1) 이원 변량 분산 분석

국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에서 외국인 이주자와 관련된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주제 분야별 보도량의 차이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연도별 비교 분석도 하였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뉴스를 10년 씩 나누어 비교한 결과, 사회, 문화, 국제, 경제 분야 주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부터 외국인 거주 마을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이 개방되며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거주 마을마다 다른 주제에 편향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래마을'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문화 분야의 뉴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F = 3.87, p < 0.05$)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0년대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23배 이상의 문화 주제의 보도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뉴스에서 서래마을을 단순한 프랑스인 거주지 이상으로 그들의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유행하게 된 맛집 열풍과 서래마을의 고급 빌라에 주목하는 보도들이 많아지면서 언론이 문화적 측면에서 서래마을을 조명하고 있고, 점차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 분야에서의 보도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F = 2.54, p < 0.05$), 국제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만($F = 2.38, p < 0.05$), 이렇게 2000년대 보도량이 급증한 것은 2006년에 서래마을에서 발생했던 프랑스인 부부의 영아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 사건이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범죄사건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혐의를 인정한 프랑스인 부

표 3. 시기에 따른 외국인 거주 마을별 뉴스 주제 유형별 보도량에 대한(시기별 × 마을별) 이원 변량 분석 결과
(단위: 건, 괄호 안은 %)

	시기	서래마을 *프랑스	동부이촌동 *일본	구로동*중국	F(4, 512)
지역	1990년대	0 (0.00)	0 (0.00)	1 (2.86)	0.65
	2000년대	0 (0.00)	1 (20.00)	14 (40.00)	
	2010년대	1 ^a (100.00)	4 ^a (80.00)	20 ^b (57.14)	
정치	1990년대	0 (0.00)	4 (44.44)	3 (25.00)	0.15
	2000년대	1 (33.33)	3 (33.33)	6 (50.00)	
	2010년대	2 (66.67)	2 (22.22)	3 (25.00)	
스포츠	1990년대	0 (0.00)	4 (57.14)	0 (0.00)	1.26
	2000년대	7 (87.50)	2 (28.57)	6 (85.71)	
	2010년대	1 (12.50)	1 (14.29)	1 (14.29)	
사회	1990년대	0 (0.00)	12 (36.36)	11 (12.22)	2.54**
	2000년대	105 ^b (84.00)	13 ^a (39.39)	38 ^a (42.22)	
	2010년대	20 (16.00)	8 (24.24)	41 (45.56)	
문화	1990년대	0 ^a (0.00)	20 ^b (16.67)	7 ^a (7.69)	3.87**
	2000년대	84 ^c (32.81)	68 ^b (56.67)	41 ^a (45.05)	
	2010년대	172 ^b (67.19)	32 ^a (26.67)	43 ^a (47.25)	
국제	1990년대	1 (0.41)	3 (6.82)	3 (3.61)	2.38**
	2000년대	174 ^b (71.90)	23 ^a (52.27)	54 ^a (65.06)	
	2010년대	67 (27.69)	18 (40.91)	26 (31.33)	
경제	1990년대	0 (0.00)	5 (6.33)	26 (6.40)	7.66***
	2000년대	14 ^a (28.00)	35 ^a (44.30)	277 ^b (68.23)	
	2010년대	36 ^a (72.00)	39 ^a (49.37)	103 ^b (25.37)	
IT_과학	1990년대	0 (0.00)	2 (22.22)	0 (0.00)	1.43
	2000년대	2 ^a (16.67)	1 ^a (11.11)	23 ^b (43.40)	
	2010년대	10 ^a (83.33)	6 ^a (66.67)	30 ^b (56.60)	
총계	1990년대	1 (0.14)	50 (16.34)	51 (6.56)	1.37
	2000년대	387 ^a (55.52)	146 ^a (47.71)	459 ^c (59.07)	
	2010년대	309 ^b (44.33)	110 ^a (35.95)	267 ^{ab} (3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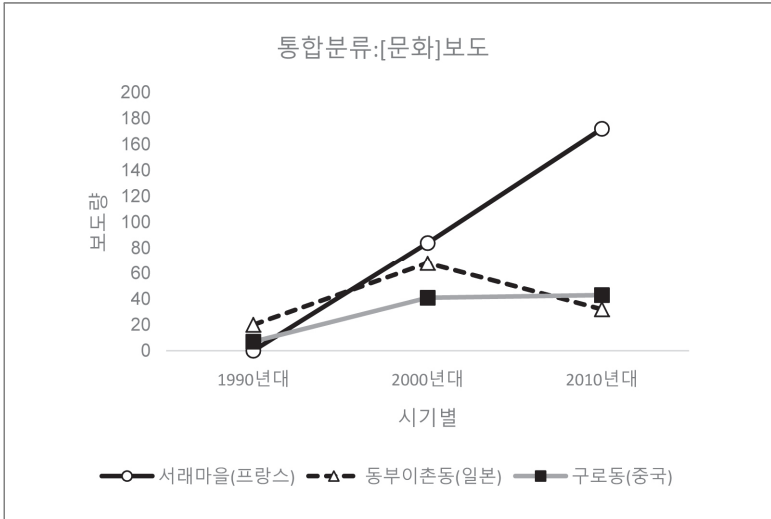
note 1: 시기별 총 보도량과 괄호 안의 수치는 보도량 중 해당 시기의 보도 비율(%)을 의미.

note 2: a, b로 제시된 첨자는 ANOVA 사후 검정(Scheffé, b Test) 결과.

유의수준(Substet for alpha, $p = .05$)에서 마을별로 보도량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a, b 혹은 c로 제시, c인 경우 b에 비해서 보도량이 더 높았음을 의미함($c > b > a$).

note 3: * $p < 0.1$,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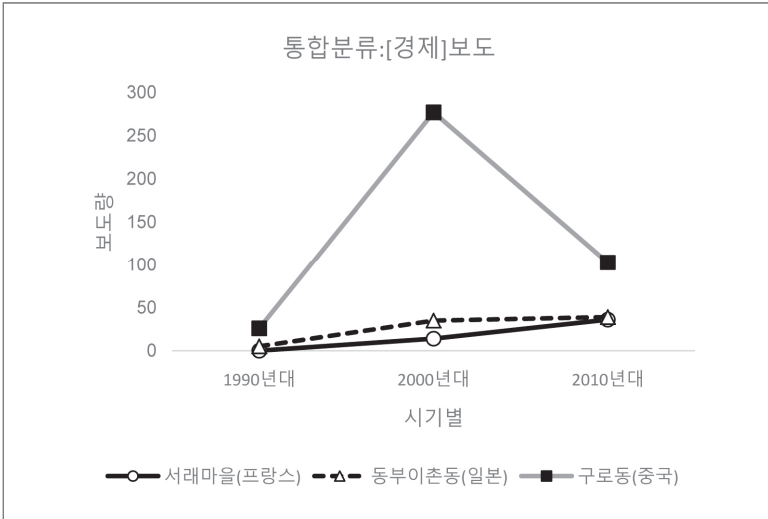
그림 2. 시기별, 마을별 '문화' 보도량 차이



부가 본국으로 소환되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자 범죄 관련 기사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오히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프랑스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서래마을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서초구 반포동과 방배동 일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국인을 소비자로 겨냥한 프랑스인들의 자영업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14년을 기점으로 서래마을의 문화면 기사가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래마을과 프랑스에 관련된 뉴스에서 사회와 국제 주제 관련 보도를 제외하고, 문화 주제의 보도가 점차 증가한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로동'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경제 주제의 뉴스 보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F = 7.66, p < 0.01$), 보도량은 1990년대보다

그림 3. 시기별, 마을별 '경제' 보도량 차이



2000년대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경제 분야의 보도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후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관련 보도량도 감소했지만, 서래마을과 동부이촌동에 비교하면 구로동 관련 경제 주제의 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래마을이나 동부이촌동과 비교한다면 구로동의 문화적 측면의 보도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만큼 구로동이나 중국인의 문화적 관심은 미비하였다.

6. 결론 및 한계점

이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와 그에 따른 외국인 거주지 형성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의 편향성을 살펴보았다. 특정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언론의 이슈 생성은 고정된 이미지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인종적 편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탈성 혹은 선정성에 치우쳐 외국인 마을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장기간 특정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보도된 기사를 빅카인즈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중에서 지상파 방송사 두 채널과 뉴스 전문 채널, 그리고 주요 일간지 13개를 포함하여 총 16개의 언론사 뉴스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기사는 이주자의 출신 국가와 거주 지역을 주제로 검색하였고, 주제별 분류 및 시간차에 따라 이원 변량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마을에 대한 보도는 주제 분류에 따라 보도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기술적 통계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주요 거주지인 서래마을의 경우 문화 주제의 보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본인의 주요 거주지인 동부이촌동 역시 문화면 보도가 가장 두드러지고 경제면, 국제면 보도도 골고루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이 밀집한 구로동의 경우 경제면 기사가 많았다. 이때 서래마을에 대한 문화 주제의 보도가 다른 외국인 마을에 비해 많은 것은 상징적 인종주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혼혈이라는 인종주의적 색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는 ‘다문화’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존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은폐하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컨대 동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이 다문화를 상징하듯이, 이주민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그들의 거주지 공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한

국으로 이주 당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착한 이주민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언론 보도 역시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 하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거주 이주민에 대한 편파적인 담론을 형성하며 파생되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그러한 이미지에 대립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언론 보도 양상을 통해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문화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야만과 문명(문화)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 서구 우월주의에 따른 배타적 문화 수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타문화권 출신의 이주민들과의 공존 시 문화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에 대한 현격히 적은 문화 관련 보도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 보도의 차별적 포섭 방식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범죄인화로 인해 지속적인 원주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주거 지속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중국인의 결집은 강화되어 한국 사회로의 동화보다는 동일 국가 출신들 간 단합으로 계도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주류 사회와 이주민 집단 간의 갈등 조장 가능성으로 인해 외국인 거주지는 특정 이미지를 지닌 마을로 구획화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언론의 보도 방식은 고착화되어 외국인 마을의 구획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하는 데 역기능을 발휘하고, 외국인 이주자들을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체류자로 단정 지어 행정적 정책 확립을 더디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 내재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거주지 분화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데에 언론 보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주제의 보도에서 서래마을과 프랑스에 관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로 알 수 있듯이, 특정 마을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빅데

이터 분석으로 증명하여 다문화 담론을 계량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27년간 보도된 기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빅데이터의 언론학으로의 적용을 실현했으나, 연구문제에 부합하지 않는 방대한 기사 검색 결과로 인해 분류가 난해하다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인을 제외한 동아시아인 거주 지역은 보도량 자체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언론 보도와 한국 사회의 무관심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는, 통상 분류 외에도 뉴스 식별자, 일자, 언론사, 제목, 기사 본문 서두와 같은 언론사 제공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기고자, 인용문, 기사 내 인물, 기관, 위치, 키워드, 특성 추출과 같은 자연어 처리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사 수집 작업 및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연구자의 수고를 경감시키므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개별적 분류 작업에 의존하는 일회적(cross-sectional) 내용 분석을 종단적(longitudinal) 분석으로 확장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 공간 관련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가 계급적, 인종적 혹은 젠더화되는 양상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노동, 결혼, 교육과 같이 서로 다른 이주 목적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계급화와 인종적 재현이 공간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지역이나 본국의 이주민이 사전에 자리 잡은 지역으로 결집할 경우, 원주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공간의 분화뿐만 아니라 비가시적 경계 또한 두터워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데서 언론의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프랑스 서레마을, 동

부이촌동 일본인 마을, 그리고 구로동 일대 중국인 마을에 관한 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이주민의 거주 공간 분화에 발동하는 언론 보도 태도와 외국인에 대한 편파적인 사회적 거리감 형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현 · 박민제 · 성호준 (2017, 4, 2). 외국인 · 다문화에 여전히 혼란스러운 한국인들. 〈중앙선데이〉, 525호, 10면.
- 강휘원 (2010). 캐나다 이주민 거주지역의 초기 집중과 공간적 확산. 〈한국정책연구〉, 10권 3호, 1-19.
- 김나한 (2016, 2, 17). 이태원 · 이촌동 → 홍대앞 · 상암 … 넓어지는 외국인 마을 지도. 〈중앙일보〉, 21면.
- 김미향 (2016, 3, 3). “이주민은 위협?” … 나부터 “그건 아니다” 말해요. 〈한겨레〉, A10면.
- 김성태 · 권상희 · 김예란 · 김지훈 · 김해원 (2015). 〈빅데이터 시대의 커뮤니티 연구〉 (4-40쪽). 서울: 울곡출판사.
- 김은미 (2007). 다인종 · 다민족화의 공간적 · 계급적 분석. 〈한국사회학회 기 타간행물〉, 3장, 117-146.
- 김은미 · 김지현 (2008). 다인종 · 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 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권 2호, 1-35.
- 김은이 · 송민호 · 김용준 (2015). 신문의 자살 보도가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살 보도 내용과 웹 검색 활동의 동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3호, 94-122.
- 김일림 (2009). 한국적 다문화 이론과 공간에 대한 고찰: 서울의 경우. 〈한국사 진지리학회지〉, 19권 4호, 95-106.
- 김현희 (2014). 인종주의와 한국사회의 범문화: “다문화사회”의 범의식. 〈비교문화연구〉, 20집 2호, 5-46.
- 김희상 · 윤인진 (2017). 미디어 접촉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수용성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25권 1호, 8-42.

-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2017). ‘한끼 줍쇼’ 서래마을은 어떤 곳? … “연예인 많
이 사는 부촌(富村)”. URL: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26/82610716/2>.
- 박대민 (2013). 뉴스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 정보원 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234-262.
- 박대민 (2016). 장기 시계열 내용 분석을 위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가능성: 100만 건 기사의 정보원과 주제로 본 신문 26년. <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353-420.
- 박세훈 · 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 분포 특성과 정책 함의. <국토연구>, 64권, 59-76.
- 박종구 · 육풍림 · 강재구 (2012). 언론보도에 따른 이태원관광특구 이슬람 음식의 사회적 거리감. <관광학연구>, 36권 1호, 11-30.
- 서울통계 (2016). 서울시 등록 외국인 현황. URL: <http://stat.seoul.go.kr/octagonweb/jsp/WWS7/WWSDS7100.jsp>.
- 설한 (2014).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퇴조 원인 분석: 문화 개념과 규범성 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7권 1호, 81-106.
- 송도영 (2008). 일상 공간행위와 재현을 통한 도시경관의 문화정치: 파리 20구 벨빌 지역 이주민 커뮤니티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권 1호, 151-184.
- 신유리 (2013). 한국 뉴스에서의 타자화: ‘이주민’ 관련 기사의 비판적 담화 분석. <담화와 인지>, 20권 3호, 169-194.
- 심양섭 (2016).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의 쟁점과 실제 그리고 대응: 여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7집 2호, 137-170.
- 오경석 · 정진화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권 1호, 72-93.

- 우충완·우형진(2014).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 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권, 185-227.
- 육주원(2016). 반다문화 담론의 타자 만들기를 통해 본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협력적 경쟁관계. <한국사회학>, 50집 4호, 109-134.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집 2호, 72-103.
- 윤인진·송영호(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55호, 143-192.
- 이석현(2015). 다문화지구의 주거지속성을 위한 공간 인식 조사. <한국디자인학회>, 28권 2호, 121-134.
- 이인희·황경아(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6권 2호, 83-108.
- 임안나(2016).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이주 공간: 텔아비브 필리핀 노인돌봄노동자들의 ‘주말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권 6호, 799-817.
- 정임수(2013, 2, 12). 포린후드, 서울에만 30여 곳... 상권 지도 바뀐다. <동아일보>, B1면.
- 주재원(2014). 방송 콘텐츠의 타자 재현과 문화적 함의: KBS 9시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권 8호, 40-49.
- 천인성(2016, 11, 15). 외국인 주민 171만, 전남 인구와 비슷. <중앙일보>, 19면.
- 법무부(2016).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URL: [http://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275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Amossy, R. (1997). *Stéréotypes et clichés: Langue, Discours, Société*.
 조성애 (역) (2001). <상투어: 언어 담론 사회>. 서울: 동문선.

- Foucault, M. (1966). *Les Hétérotopies*. 이상길 (역) (2014).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 Madanipour, A. (2003). Social exclusion and space. In G. Haughton & C. Hunter (Eds.), *Sustainable cities*. London: Routledge.
- Manovich, L. (2011). Trending: the promises and the challenges of big social data. In M. K. Gold (ed.),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pp. 460-475).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edlawsk, D. P., Tolbert, C. J., & McNeely, N. A. (2014). Symbolic racism and emotional responses to the 2012 presidential candidat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7(3), 680-694.
- Viktor, M., & Kenneth, C. (2013).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이지연 (역) (2013).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파주: 21세기북스.

최초 투고일 2017년 02월 28일

심사 수정일 2017년 04월 15일

게재 확정일 2017년 04월 21일

Abstract

A Study of Multicultural Space in Seoul Analysing the Coverage of Foreign Communities with News Big Data Analytics 'BigKinds' for 27 Years

Eunbyul Lee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Jino John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Jeesun Baek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spatial segregation of immigrants in Seoul aiming to better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Korean news coverage regarding multicultural society. By employing news big data system named BigKinds and ANOVA analysis, 1,780 news reporting from 1990 to 2016 of three major broadcasting and 13 newspapers were analyzed focusing on Seorae village based on French background, Dongbu Ichon-dong Japanese village and Chinatown in Guro District. The study in the base of One-way ANOVA finds, at first, specific theme – culture – is solely focused on Seorae village, whereas Guro district is exclusively reported on cultural theme. In addition, based on Two-way ANOVA reveals that the news reporting has been increased since 2000s particularly Seorae village and cultural theme;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stereotypical images on specific space lead to bias toward the foreign communities. Accordingly, this study contributes to pave the way to multicultural discourse by news big data concept in media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spatial segregation, Seorae village, Dongbu Ichon-dong, Guro district, BigKinds, news big data